

양성 평등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



캐리어우먼
(사진제공 : AFLO)

성 평등 사회를 향하여

1996년 12월, 일본 정부는 성평등 2000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1999년에 만들어진 성평등 사회에 대한 기본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에 나와있는 다섯 가지 기본 법안들은 이렇하다. 여성과 남성을 인격적으로 존중, 사회적 체계나 관습들에 대한 고찰, 정책들을 고안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반 참여, 가정생활과 다른 활동들 사이의 양립성 확보, 상호 협력관계 유지이다.

2000년 12월에 내각은 1999년 법안의 조항들에 기반을 둔 성평등화 기본 법안들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에는 다음의 11가지 주된 목표들이 포함된다. 여성들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사회적 체계와 관습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화 관점에서 개혁, 고용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농촌지역에서의 성평등화 확립, 일과 가정, 공동체 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 노인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제거, 여성의 장수 및 건강 지원, 대중매체에서 여성인격 존중, 성평등화 촉진 및 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강화, 끝으로, 지구촌 공동체의 '평등, 성장, 평화'에의 기여이다.

2001년 1월에는 중앙 정부가 재편성되어, 내각부가 문을 열었고,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국이 설치되었다. 성평등위원회는 내각부에 있는 다섯 개의 주요 정책 의회 중 하나로서, 기본 정책 및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기관이다.

성평등국은 성평등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사용된다. 성평등국은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양성평등 사회를 촉진하는데 관련된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력하고, 성평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추진하며, 어떤 특정 부서의 권한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사항들을 위한 계획을 공식화하고 실행한다.

매년 여성들의 정치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정계 의장과 위원회에 여성들의 의석을 늘이는 방안을 채택해 왔다. 더욱이 2013년부터 정부는 '우머노믹스(Womanomics)'라고 명명하면서 육아후 여성 재취업 및 여성 관리직을 늘릴 방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근무 조건

1986년 4월에 효력을 발휘한 남녀평등고용기회법은 1997년 6월에 남녀 차별에 반대하는 취지로 개편되었다. 1999년에 발효한 개정된 조항들은 채용, 고용, 구체적인 직무 할당 및 승진에서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 고용인들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주로 고용인들이 기본적인 성차별에 대해 훨씬 명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고안되었다.

남녀평등고용기회법의 개정안과 더불어 근로기준법도 여성들이 휴가 중, 늦은 밤. 그리고 다른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하는 것에 가했던 제한들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일종의 성차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 조건이 평등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직도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는커녕 아예 없애 버린다면, 여성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다.

2016년 일본의 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44.2%이다. 1975년에는 32.0%이었으나 그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에 찾아서, 주로 서비스와 음식 산업, 도매와 소매 대리점. 전자 장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년 이상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의 채용을 줄여왔고,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취직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대졸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성이 97.5%, 여성이 약 98.6%로서 거의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격차를 보이는 긍정적인 면도, 시간제 일을 하는 여성 대졸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과 많은 회사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여대생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적합하고 평등한 고용 기회를 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 활동에서 허물기 힘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녀 평등 기회법의 1997년 개정안이 현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1996년 약 20%였으나 2017년에는 약 37.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회사들이 정규 근로자를 대체하여 임시 '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직업 범주를 넓히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 이래로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가사분담을 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1995년과 1996년을 제외하고, 1992년 이래 맞벌이 가구의 수가 남성만 일하는 가구 수를 초과하였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둘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

남녀 결혼연령의 상승은 출생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이유로 직업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또한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응한 70% 이상의 여성들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1년 전까지 일을 했지만, 70% 이상이 출산 후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에 더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하는 남성의 수는 여전히 적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하는 주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들의 일”이라는 뿌리깊은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영향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점점 더 많은 남성(특히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25-40세 그룹의 남성)이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이 출생률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며, 1991년에는 고용주들이 1살 이하 유아를 돌보기 위해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남녀 모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보호법이 발효되었다.

그 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그 법안은 현재 특정한 기준에 달하면 1년 6개월 이하의 아기를 보육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연령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매년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저 출산 문제에 더하여, 평균 수명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현상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2018년 현재)이며 이는 세계최장수준의 평균수명이다. 65세까지의 여성 인구는 불과 60%이고, 85세까지의 인구가 70%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돌보기 위해, 2000년에 장기 보험 체제가 시행되었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면, 일반적으로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간호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는 개정 아동보호법이 통과되었다. 1999년에 완전히 발효된 이 법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부, 부모, 미취학 자녀, 시부모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을 감소 시대

일본에서 고졸 이상의 정식 교육과정을 마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2019 회계연도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57.77%, 남성이 51.63%였다.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수는 같은 수준의 남자들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인생 목표였던 결혼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희박해졌다. 국립 사회 보장 인구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 결혼은 그들의 행동, 삶의 방식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한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신체적 부담감을 가중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에, 25-29세의 미혼 남녀 비율은 남성이 55.1%였으며, 여성은 24.0%였다. 2015년에는 미혼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 남성의 경우는 72.5%가 미혼이고, 여성의 경우는 61.0%에 달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날 16세 미만의 여성들 중에 7명 중 1명꼴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의 경우가 29.4세였고, 남성은 31.1세였다. 일본의 또 다른 변화로는 이혼을 급증을 들 수 있다. 1980년에는 부부 1,000쌍 중 이혼율이 1.22였으나 2016년에는 1.73로 증가하였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로

한편으로 남성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사와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깥일을 열심히 하는 남성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히 여기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또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 세대의 과반 수는 맞벌이 세대이다.

이러한 변화로 요리 등의 가사를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남성이 증가하여 이를 지원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시청에서는(임산부 교실이 아닌) ‘예비 부모 교실’을 개최하여 남성에게도 육아의 기본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의 법 개정으로 업무방식개혁의 추진을 결정하여 근무 시간 축소와 연차유급휴가 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보육비가 무상이 된 법개정을 하였다.